

가정상담

2023 | 09
통권 481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전국 어디에서나
가정법률 관련 **화상상담**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세요
www.lawhom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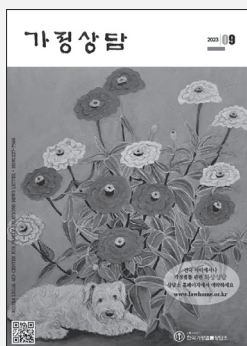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 여름 비혼모가정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2박3일 동안 진행되었다. 어린 아기부터 청소년 자녀까지 포함한 비혼모 가족 48가정이 참여한 이번 캠프에서는 비혼모가정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그리고 소통과 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관련내용 13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생활 속의 청렴 실천, 다가오는 밝은 미래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상담통계 - 화상상담
- 13 • 교육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 21 • 특별기획 |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⑨
- 23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⑤3
- 24 • 가정폭력상담실
- 27 • 어떻게 할까요
- 29 • 좋은 책
고래
- 30 • 현장체험 연수 소감문
-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6 • 소송구조

비혼모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할 수 없어

현장의 목소리가 법과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해마다 8월이면 상담소는 2박 3일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 2021 두 해를 건너뛰게 되어 그동안 많이 걸렸는데 다행스럽게 작년부터 이 캠프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담당자가 정리한 캠프 보고서를 보면 상담소 직원들이 고단한 가운데에도 이 캠프에 열과 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을 영위하기 힘든 어려운 비혼모 가족들이 일 년에 한 번이라도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이 캠프가 얼마나 소중한지 참가자들의 후기가 그들의 마음을 절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가정과 가족 문제의 최일선에 서 있는 상담소는 일찍부터 비혼모 가정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법과 제도, 정책의 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비혼모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상담과 교육은 물론 이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여가와 쉼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사회의 법과 제도가 만인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복지사회

의 과제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성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소통하며 특히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집중하는 것이 진정 정책 당국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과제가 ‘저출생’이며, 이는 다양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비혼모 가정의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닿아 있기에 비혼모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정의 문제를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가정의 구성원이 현실에 입각하여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릴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과제 또한 올바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상당소의 심포지엄이나 연구과제는 물론 이 지면을 통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해 왔듯이 우리나라의 저출생 상황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미 몇 년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다가 우리를 일컬어 ‘집단지살 사회’라 부르며 저출생의 심각성을 경고한 것도 큰 충격이었는데 이러한 사태가 여전히 돌파구를 못 찾고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저출생 여파로 우리나라 인구는 최근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한 총인구는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더 감소했습니다. 지방의 변화를 보면 이 같은 상황은 더 충격적입니다. 2000년만 해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는데 지금은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인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태어난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사회, 소중한 사회 구성원을 이런 저런 이유로 돌보지 않고 소외시키는 한편 혼인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진입장벽이 나날이 높아지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혼모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을 받아들여 제대로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같은 심각한 사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저출생 해결의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무늬만 ‘저출산 대책’에 7조 4000억 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 정책 당국이 진정 인구 위기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출생의 문제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의 도입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과 같은 근시안적 대책 말고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으려는 세대를 이기적이라 비난하는데, 그에 앞서 우리 사회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기에 적절한지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비혼모가정은 물론 다양하고 폭넓은 우리 사회 가정 문제의 현장을 70년 가까이 지켜오고 있는 상당소에 대해 1988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는 일부의 예산을 가지고 해마다 힘겹게 할 때, 저렇듯 흘러가는 예산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출생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모든 가정의 문제이며, 그 문제의 가장 최일선에 상당소가 있습니다.

특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상담통계 - 화상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화상상담 일 년 (2022.7.15. ~ 2023.7.14.)

2022년 7월 15일 화상상담 시작,
지난 1년 간 총 868건 상담 진행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개인 휴대기기 이용해
어디서든 쉽게 접속

일반 면접상담에 비해 30대, 40대 많아

자녀 양육하는 주부, 일하는 회사원,
시간상 거리상 진행하기 편리해 많이 이용

남녀 모두 이혼, 양육비에 대한 상담 많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2022년 7월 15일부터 화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내담자들의 비대면 상담에 대한 수요가 늘고 거리상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에 대한 상담과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화상 면접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내담자들은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개인 휴대기기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30분 단위로 상담 예약을 받고 있으며 2개의 회선에서 순번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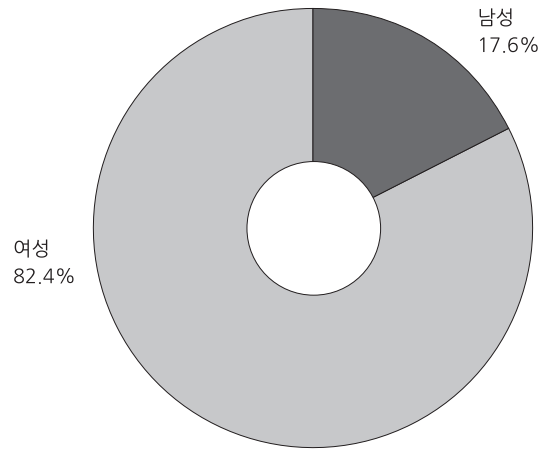
1. 상담건수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7월 14일까지 1년간 본 상담소에서는 총 868건의 화상상담을 진행하였다.

시작 첫 달인 7월에는 15일부터 약 보름간 53건을 진행하였고 다음 달인 8월에는 109건을 기록하였다. 9월에는 67건, 10월에는 36건으로 감소하였으나 11월에는 72건으로 증가하였고, 12월에는 51건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그동안 화상상담을 원했던 이들이 몰려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3년 3월부터는 안정기에 접어들어 월 80건 내외의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 월별 상담건수 분석표 〉

날짜	총건수
22/07/15~07/31	53
22/08	109
22/09	67
22/10	36
22/11	72
22/12	51
23/01	63
23/02	66
23/03	80
23/04	72
23/05	81
23/06	82
23/07/01~07/14	36
합계	868



내담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715명 (82.4%), 남성이 153명(17.6%)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7 배 많았다.

본 상담소에서 2022년도에 진행된 일반 면접상담의 내담자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55.2%, 남성 44.8%로 나타났다는데 화상상담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더욱 높았다.

2. 내담자 특성별

1) 남녀별

여성이 남성보다 4.7배 많아

여 성	715 명	(82.4%)
남 성	153 명	(17.6%)
합 계	868 명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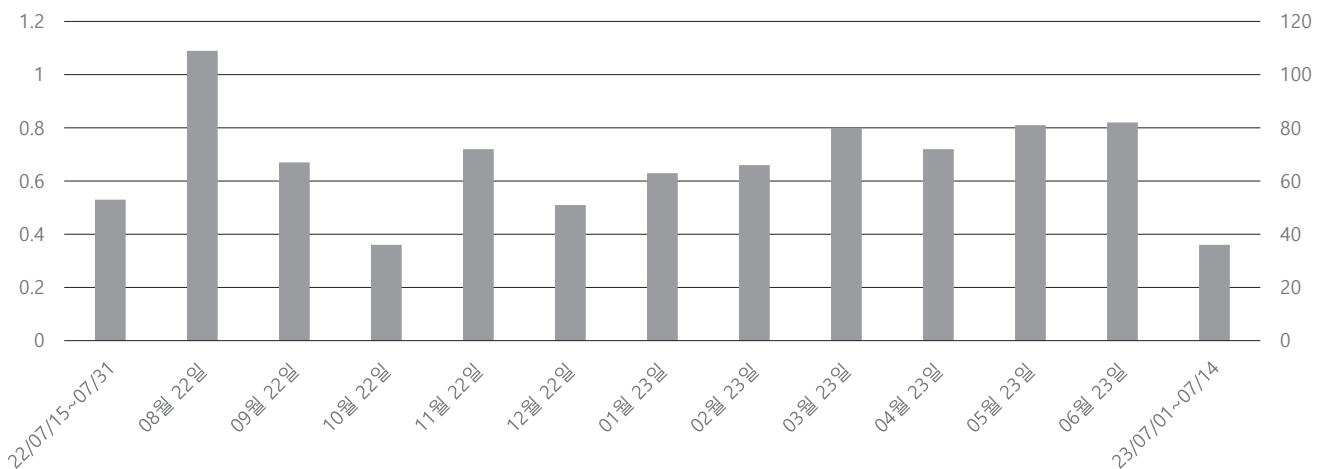
2) 연령별

40대, 30대, 50대 순으로

일반 면접상담에 비해 30대, 40대 많아

젊은층의 화상상담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 더 용이

월별 화상상담 건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38.9%(338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30대(32.6%, 283명), 50대(15.1%, 131명), 20대(9.1%, 79명), 60대 이상(4.3%, 37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40대가 37.8%(27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34.3%, 245명), 50대(15.0%, 107명), 20대(9.7%, 69명), 60대 이상(3.4%, 24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40대가 44.4%(6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24.8%, 38명), 50대(15.7%, 24명), 60대 이상(8.5%, 13명), 20대(6.5%, 10명) 순으로 나타나 여성과 차이를 보였다.

한편 본 상담소에서 2022년도에 진행된 일반 면접상담의 내담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은 40대(28.0%), 60대 이상(25.5%), 50대(22.8%), 30대(17.6%), 20대(5.7%) 순으로, 남성은 60대 이상(34.3%), 50대(25.7%), 40대(24.4%), 30대(11.3%), 20대(3.6%) 순으로 나타나 화상상담과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화상상담과 일반 면접상담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으나 다음으로 화상상담에서는 30대가 많았던 반면 일반 면접상담에서는 60대 이상이 많았고, 남성의 경우 화상상담에서는 40대가 가장 많았던 반면 일반 면접상담에서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 즉 60대 이상의 비율이 일반 면접상담에서는 여성 25.5%, 남성 34.3%로 높았으나 화상

상담에서는 여성 3.4%, 남성 8.5%로 낮았고, 30대의 비율이 일반 면접상담에서는 여성 17.6%, 남성 11.3%로 낮았으나 화상상담에서는 여성 34.3%, 남성 24.8%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이는 화상상담의 기반이 되는 줌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고령층보다는 젊은층에서 더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직업별

여성은 주부, 회사원, 기타, 교육직 순으로

남성은 회사원, 기타, 자영업, 무직 순으로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부가 24.3%(211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회사원(22.9%, 199명), 기타(12.7%, 110명), 자영업·교육직(각 7.1%, 각 62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주부가 29.4%(21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회사원(20.6%, 147명), 기타(12.0%, 86명), 교육직(7.4%, 53명) 자영업(5.7%, 41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회사원이 34.0%(5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타(15.7%, 24명), 자영업(13.7%, 21명), 무직(9.2%, 14명), 교육직(5.9%, 9명) 순으로 나타나 여성과 차이를 보였다.

한편 본 상담소에서 2022년도에 진행된 일반 면접상담의 내담자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은 주부가 24.7%

〈 연령별 분석표 〉

연령 \ 성별	여 성		남 성		합 계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대	-	-	-	-	-	-
20대	69	9.7	10	6.5	79	9.1
30대	245	34.3	38	24.8	283	32.6
40대	270	37.8	68	44.4	338	38.9
50대	107	15.0	24	15.7	131	15.1
60대 이상	24	3.4	13	8.5	37	4.3
합 계	715	100	153	100	868	100

〈 직업별 분석표 〉

연 령	성 별	여 성		남 성		합 계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주부		210	29.4	1	0.7	211	24.3
회사원		147	20.6	52	34.0	199	22.9
단순노무		34	4.8	2	1.3	36	4.1
자영업		41	5.7	21	13.7	62	7.1
공무원		24	3.4	5	3.3	29	3.3
경찰		1	0.1	-	-	1	0.1
군인		1	0.1	1	0.7	2	0.2
교육직		53	7.4	9	5.9	62	7.1
전문직		36	5.0	2	1.3	38	4.4
운전		-	-	3	2.0	3	0.3
세일즈		3	0.4	2	1.3	5	0.6
학생		8	1.1	4	2.6	12	1.4
간호사		5	0.7	-	-	5	0.6
약사		-	-	-	-	-	-
의사		2	0.3	1	0.7	3	0.3
한의사		-	-	-	-	-	-
농수산임목		-	-	2	1.3	2	0.2
예술인		8	1.1	-	-	8	0.9
종교인		-	-	3	2.0	3	0.3
법조인		2	0.3	2	1.3	4	0.5
기술직		4	0.6	3	2.0	7	0.8
무직		37	5.2	14	9.2	51	5.9
기타		86	12.0	24	15.7	110	12.7
미상		13	1.8	2	1.3	15	1.7
합 계		715	100	153	100	868	100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회사원(9.7%), 무직(7.3%), 기타(5.8%), 단순노무(5.6%) 순으로, 남성은 회사원이 1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무직(16.6%), 단순노무·자영업(각 8.6%), 기타(5.6%)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일반 면접상담과 비교해 볼 때 여성의 경우 주부와 회사원이 1, 2순위로 나타난 점은 동일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고(화상상담 주부 29.4%, 회사원 20.6%, 면접상담 주부 24.7%, 회사원 9.7%) 남성의 경우에도 회사원이

1순위인 점은 동일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화상상담 회사원 34.0%, 면접상담 회사원 18.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젊은층의 비율도 높았는데 이는 화상상담의 경우 평소 어린 자녀와 이동이 어려웠던 젊은 여성이나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젊은 남녀 회사원들이 본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시간적인 측면이나 이동하는 측면에서 훨씬 접근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 월수입별

여성은 무·미상,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500만원 순으로

남성은 301~500만원,

무·미상, 501만원 이상, 201~300만원 순으로

월수입을 살펴보면 없거나 미상인 경우가 30.1%(261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01~200만원 이하(18.4%, 160명), 201~300만원 이하(17.9%, 155명), 301~500만원 이하(16.2%, 141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없거나 미상인 경우가 33.0%(23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01~200만원 이하(19.9%, 142명), 201~300만원 이하(18.6%, 133명), 301~500만원 이하(12.2%, 87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301~500만원 이하가 35.3%(5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없거나 미상인 경우(16.3%, 25명), 501만원 이상(15.7%, 24명), 201만원~300만원 이하(14.4%, 22명) 순으로 나타났다.

3. 사건내용별

여성은 이혼, 양육비, 기타, 부부갈등 순으로

남성은 이혼, 양육비, 친권/양육권, 기타 순으로

상담 많아

상담을 내용별로 구분해보면, 총 868건 중 가사사건이 775건으로 89.3%를 차지하였다. 민사사건은 14건(1.6%), 형사사건은 9건(1.0%) 있었고, 그 외 기타가 70건(8.1%)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항목은 이혼으로 총 868건 중 355건(40.9%)에 달했다. 다음은 양육비(81건, 9.3%), 기타(70건, 8.1%), 부부갈등(54건, 6.2%), 친권/양육권(50건, 5.8%), 가사기타(41건, 4.7%), 유언/상속(32건, 3.7%), 위자료/재산분할·면접교섭권(각 25건, 각 2.9%), 가사절차(18건, 2.1%), 성변경(13건, 1.5%), 사실혼 해소·성년후견(각 12건, 각 1.4%), 인지·친생자관계존부(각 11건, 각 1.3%), 파산·형사기타(각 7건, 각 0.8%), 부양(6건, 0.7%), 혼인무효/취소·가족관계등록부(각 5건, 각 0.6%), 친양자·미성년후견(각 4건, 각 0.5%), 입양·파양(각 3건, 각 0.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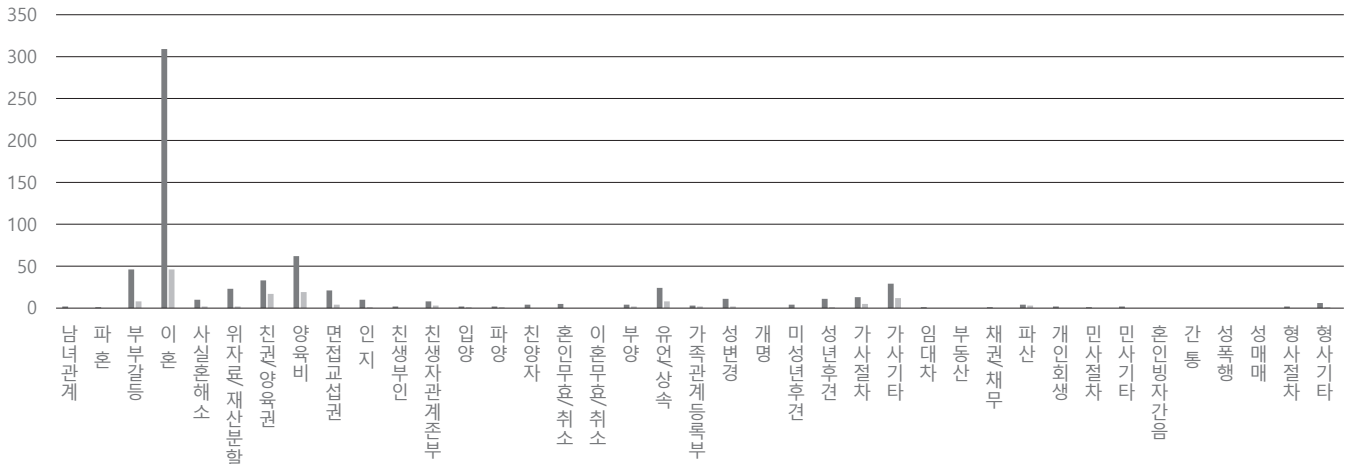
〈 월수입별 분석표 〉

연령	성별	여성		남성		합계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30만원 이하		18	2.5	3	2.0	21	2.4
31 ~ 100만원 이하		77	10.8	7	4.6	84	9.7
101 ~ 200만원 이하		142	19.9	18	11.8	160	18.4
201 ~ 300만원 이하		133	18.6	22	14.4	155	17.9
301 ~ 500만원 이하		87	12.2	54	35.3	141	16.2
501만원 이상		22	3.1	24	15.7	46	5.3
무·미상		236	33.0	25	16.3	261	30.1
합계		715	100	153	100	868	100

〈 사건내용별 분석표 〉

사 건 내 용		성 별		여 성		남 성		합 계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	사건수(명)	백분율(%)
가 사 775건 (89.3%)	남녀관계			2	0.3	-	-	2	0.2
	파 혼			1	0.1	-	-	1	0.1
	부부갈등			46	6.4	8	5.2	54	6.2
	이 혼			309	43.2	46	30.1	355	40.9
	사실혼해소			10	1.4	2	1.3	12	1.4
	위자료/재산분할			23	3.2	2	1.3	25	2.9
	친권/양육권			33	4.6	17	11.1	50	5.8
	양육비			62	8.7	19	12.4	81	9.3
	면접교섭권			21	2.9	4	2.6	25	2.9
	인 지			10	1.4	1	0.7	11	1.3
	친생부인			2	0.3	-	-	2	0.2
	친생자관계존부			8	1.1	3	2.0	11	1.3
	입양			2	0.3	1	0.7	3	0.3
	파양			2	0.3	1	0.7	3	0.3
	친양자			4	0.6	-	-	4	0.5
	혼인무효/취소			5	0.7	-	-	5	0.6
	이혼무효/취소			-	-	-	-	-	-
	부양			4	0.6	2	1.3	6	0.7
	유언/상속			24	3.4	8	5.2	32	3.7
	가족관계등록부			3	0.4	2	1.3	5	0.6
	성변경			11	1.5	2	1.3	13	1.5
	개명			-	-	-	-	-	-
	미성년후견			4	0.6	-	-	4	0.5
	성년후견			11	1.5	1	0.7	12	1.4
	가사절차			13	1.8	5	3.3	18	2.1
	가사기타			29	4.1	12	7.8	41	4.7
민 사 14건 (1.6%)	임대차			1	0.1	-	-	1	0.1
	부동산			-	-	-	-	-	-
	채권/채무			1	0.1	-	-	1	0.1
	파산			4	0.6	3	2.0	7	0.8
	개인회생			2	0.3	-	-	2	0.2
	민사절차			1	0.1	-	-	1	0.1
	민사기타			2	0.3	-	-	2	0.2
형 사 9건 (1.0%)	혼인빙자간음			-	-	-	-	-	-
	간 통			-	-	-	-	-	-
	성폭행			-	-	-	-	-	-
	성매매			-	-	-	-	-	-
	형사절차			2	0.3	-	-	2	0.2
	형사기타			6	0.8	1	0.7	7	0.8
기 타 70건(8.1%)				57	8.0	13	8.5	70	8.1
합 계				715	100	153	100	868	100

사건내용별



남녀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총 715건 중 이혼이 309건 (4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양육비(62건, 8.7%), 기타(57건, 8.0%), 부부갈등(46건, 6.4%), 친권/양육권(33건, 4.6%), 가사기타(29건, 4.1%), 유언/상속(24건, 3.4%), 위자료/재산분할(23건, 3.2%), 면접교섭권(21건, 2.9%), 가사절차(13건, 1.8%), 성변경·성년후견(각 11건, 각 1.5%), 사실혼해소·인지(각 10건, 각 1.4%), 친생자관계존부(8건, 1.1%), 형사기타(6건, 0.8%), 혼인무효/취소(5건, 0.7%), 친양자·부양·미성년후견·파산(각 4건, 각 0.6%)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총 153건 중 이혼이 46건(30.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양육비(19건, 12.4%), 친권/양육권(17건, 11.1%), 기타(13건, 8.5%), 가사기타(12건, 7.8%), 부부갈등·유언/상속(각 8건, 각 5.2%), 가사절차(5건, 3.3%), 면접교섭권(4건, 2.6%), 친생자관계존부·파산(각 3건, 각 2.0%), 사실혼해소·위자료/재산분할·부양·가족관계등록부·성변경(각 2건, 각 1.3%), 인지·입양·파양·성년후견·형사기타(각 1건, 각 0.7%) 순으로 나타났다.

김진영 상담위원



자녀와 함께, 뜻깊은 첫 여행

소중한 가족끼리 마음을 열고 사랑을 더하는 행복한 시간

“출산 후 8개월, 아기와 함께한 첫 여행이다. 꿈에 그리던 물놀이도 하고 월풀목조에서 아기와 놀이도 하고 그저 평범한 가정의 저녁 같았다.”

“점점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친구들과의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많아진 사춘기 아이의 특성을 보여주는 아이. 그런 아들과 함께하는 너무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기에서의 시간이 사춘기 아이와 다시금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과 추억이 된 듯하여 너무 행복하네요.”

“요즘 사춘기로 속 썩이고 있는 우리 금쪽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서로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친구 문제 학업 문제 등 이것저것을 털어놓더라구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 또한 요즘 갱년기라고 같이 소리 지르고 싸우고 감정싸움에 지쳐있었는데, 처음 참여하는 여름 캠프에서 자녀와 함께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아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3주 입원하고 그래서 혹시나 어딜 가거나 하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병원 외엔 어디에도 못 갔는데, 처음으로 아이와 여가저기 함께 다녀봤어요.”

“올여름 첫 바다 여행을 떠난다는 것에 들떠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다른 엄마들과 아이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몇 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이쁘고 착하고 밝게 키울 수 있을지...”

“한부모로서 당당하고 멋있게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점을 느끼고 동기부여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부모로서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를 응원합니다!!”

“넘 행복해요. 우리 가족 행복캠프를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보물 /호인 엄마와 제 보물 2호인 제 동생♥이랑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 일 시 : 2023년 8월 17일(목) ~ 8월 19일(토)
- 장 소 : 한국여성수련원(강원도 옥계)
- 참가자 : 비혼모 48명, 자녀 46명
조은경, 박효원 상담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천중하 센터장, 고현관 차장, 엄윤화 주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릉권주거복지센터
강릉지사)
노재광(AHA교육컨설팅 대표)
안경찬(제이원키즈스포츠)
이태연 (퍼니씨니)
애란네트워크 직원 15명 등 총 117명
- 후 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삼성생명

2022년에 이어 여름 비혼모가정 워크숍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2박 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로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에서는 비혼모 48가정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비혼모들과 함께 생후 4개월 된 어린 아기부터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자녀까지 폭넓은 비혼모가족들이 참여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비혼모를 대상으로 가족 관련 법률 교육(본소)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보급자리 마련 교육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교육 후 인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성과 본 변경, 입양, 파산면책 등에 대한 상담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양한 임대주택 신청자격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그동안 궁금하고 어려웠던 현실적인 여러 문제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 소통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동해 온천수영장, 경포 아쿠아리움, 강릉 아르떼뮤지엄 탐방의 야외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법률교육과 주거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은 연령별로 비치백, 지갑 만들기, 청소년 PG(도미노완성하기, 영화감상)등에 참가했다.

그리고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족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는데, 자녀들의 나이 별로 신나는 체육놀이(13개월 이상 50개월 이하 자녀), 오감으로 느끼는 엄마와 아기랑 놀이(12개월 이하 자녀), 가족 레크리에이션(4세 이상의 청소년 자녀) 등을 통해 비혼모들은 자녀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또한 이러한 2박 3일의 활동은 다른 비혼모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캠프에서 비혼모 엄마들은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서 겪는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생부가 외국인인 비혼모의 경우 자녀의 친권과 면접교섭권의 문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의 어려움, 양육을 반대하는 가족과의 갈등, 한부모가정으로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 주거문제, 의료비 지원, 인지(양육비, 양육자 및 친권자지정)청구, 채무관련 한 법률문제와 비혼모시설 퇴소 후의 자립준비(주거, 생활 등)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담, 교육, 가족여행, 가족 체험, 돌봄시설과 아이돌봄지원 확대, 자녀교육지원, 한부모지원 (수급비, 일자리 지원, 취업, 자격증 취득, 학원비, 진로 체험), 임대정보, 경제적 지원,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과 무료소송 등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2009년 7월, 비혼모 캠프를 처음 시작한 이래 올해로 15년 차이다. 그동안 사회적·정책적으로 비혼모들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으로 차가운 시선 속에서 이들 가정이 느끼는 고통이 여전한을 알 수 있었다. 비혼모 가정이 겪고 있는 법적·경제적·제도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이들이 당당히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비혼모 가정의 편에서 이들의 권리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상담소의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노력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

출산 후 8개월, 아기와 함께한 첫 여행이다. 여행의 설렘도 있지만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 구성이 눈에 띄었다. 애란원 입소 후 참여했던 프로그램도 있지만 아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오감 놀이 & 박물관 체험이 기대됐다. 꿈에 그리던 물놀이도 하고 월풀욕조에서 아기와 놀이도 하고 그저 평범한 가정의 저녁 같았다.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모두를 위해 준비해주신 자리인지라 열심히 듣고 참여하려 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즐기고 놀았다. 남는 건 사진이라고 아기와 사진도 엄청 찍었다.

첫 여행의 추억이 오래 남을 것 같다.

궁금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상담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양육비 소송 관련 교육과 상담을 통해 매우 좋은 정보도 얻었고 행복했던 여행이었다. 올해 말엔 2차 시설로 가게 되어 잘 자리 잡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일 고민이었는데 다른 한부모가정을 보며 힘도 생겼다. 내년 여름에도 옥계캠프에 참여할 수 있을까...

태풍피해 없는 옥계 바다로 와서 아기와 바다 여행도 꿈꿔본다. 우리 가족 캠프를 주최해 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첫 여행이었어요.

박○○

이번 캠프에 참여하면서 우리 가족은 10살 딸의 제안으로 가족 3명 모두 각 2가지씩 다짐하고 출발하였습니다.

딸은 손톱 물어뜯지 않기와 동생한테 친절하게 얘기하기. 아들은 사람 약 올리지 않기과 짜증 부리지 않기. 저는 화를 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행복캠프에 참여하면서 애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다가 바로 알아차리고 손을 입에서 멀리하는 딸 그리고 핸드폰 게임 많이 한다고 야단쳤는데 알고 보니 바다가 아름다워서 사진으로 담고 싶어서였던 건데, 사실 억울할 만도 한데 짜증 부리지 않고 핸드폰을 치우는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애들 키우면서 너무 말 안 듣고 징징거려서 힘들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애들이 저보다 더 노력하고, 힘들다고 징징대는 엄마 달래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느끼게 되니 너무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참 행복한 엄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애들 자는 시간에 바다가 보이는 도서관에 들렀는데 이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삶의 무게를 조금씩 비워내며, 사는 이야기 이어 갑니다. 이쯤 살고 보니, 지나간 모든 것들은 아름다움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늘 따뜻한 그대의 손을 잡고” 이번 행복캠프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이 저희들의 고달픈 삶에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나간 날들이 힘들기도 했지만 모두 아름다움이었고 감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어린애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물놀이를 하면서 8살 아들이 정말 어렵게 올라간 악어 튜브에서 수영 못하는 엄마가 악어꼬리에 매달려 도와달라고 하니 물에 빠지는 걸 무서워하는 아들이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만 애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애들도 저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행복캠프를 준비해주시고 사소한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많은 선생님 덕분에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 꼭 필요한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정보를 배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윤○○

아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강릉 옥계를 향해 gogo!! 그런데 2박 3일의 일정이 벌써 다 끝나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저희 가족의 힐링을 책임져 주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가족 행복캠프'.

그런데 이 캠프 참여를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중학생이라. 올해가 어쩔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작년부터 신청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아이는 이 캠프를 매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점점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친구들과의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많아진~ 사춘기 아이의 특성을 보여주는 아이. 그런 아들과 함께하는 너무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기에서의 시간이 사춘기 아이와 다시금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과 추억이 된 듯하여 너무 행복하네요. ^^

지금도 씩으면서 뭐가 그리 좋고 즐거운지 콧노래를 흥얼흥얼 ♪♪♪~(신나는 가족 레크리에이션 시간과 맛있는 간식을 먹어서인 듯)

처음 아이를 갖고 막막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애란원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고, 엄마보다 훨씬 더 큰 키를 갖게끔 자랄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엄마로 살아가는 법을 일깨워 주셨던 모든 애란원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희 모자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친정 같은 애란원. 그리고 그런 애란원에서의 추억을 간직할 수 많은 가정! 또한 그런 가정을 후원해 주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삼성생명 같은 훌륭한 단체가 있어서. 저희가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겠지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이 여름 소중한 추억과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 주신, 도움 주신 모든 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방○○

이렇게 귀한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사춘기로 속 썩이고 있는 우리 금쪽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서로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친구 문제 학업 문제 등~ 이것저것을 털어놓더라고 요.

눈물이 날 뻔 했어요. 저 또한 요즘 갱년기라고 같이 소리 지르고 싸우고 감정싸움에 지쳐있었는데 다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만족합니다.

처음 참여하는 여름캠프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뜻깊은 행사 참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갱년기와 사춘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김○○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아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3주 입원하고 그랬는데 혹시나 어딜 가거나 하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병원 외엔 어디에도 못 갔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여기저기 같이 처음으로 다녀본 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딸아이가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어딜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아이 병원 치료가 많이 있어서 갈 기회가 없었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준비해주신 캠프를 통해 여행 온 것 같아서 좋아요. 집에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번 캠프 덕분에 딸아이가 물놀이도 좋아하고. 물고기, 상어, 펭귄 등등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이번 캠프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몇 년 동안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캠프 또 오려구요! 딸아이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재밌어하네요!

한○○

올여름 첫 바다 여행을 떠난다는 것에 들떠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다른 엄마들과 아이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몇 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이쁘고 착하고 밝게 키울 수 있을지.

근데 이번에 여행을 와서 아이와 계속 놀아주고 바다도 같이 보러 가고 하면서 좋은 곳, 이쁜 곳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과 더 커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옥계 수련회를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큰아이들처럼 뛰어다니고 바다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번 여행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와 첫 바다 여행이니 보는 게 좋고 행복했고 애란원을 나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고민이 많았는데 주거교육을 받고 나니 이런저런 방법이 많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고민이 조금은 줄어서 좋았다.

아기와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 또 오게 된다면 아기랑 바다에서 놀고 싶습니다. 2박 3일 동안 잘 챙겨주시고 아기 이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2박 3일 동안 너무 보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아이를 케어하면서 참여해야 해서 참석을 안 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시설에 입소해서 있는 동안이 기회인 것 같아 고민 끝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와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한부모로 살아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지 막막하고 두려웠는데 이번 “옥계 캠프”를 통해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법률교육”, “주거교육”을 통해 얼핏 알고 있는 내용을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 엄마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이에게 넓은 곳, 다양한 곳을 경험시켜주며 아이와 또 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내가 왜 안 간다고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안 왔으면 정말 후회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아이와 함께 다시 참여하며 또 다른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한부모로서 당당하고 멋있게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점을 느끼고 동기부여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부모로서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를 응원합니다!!

장○○

3년 만에 와보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를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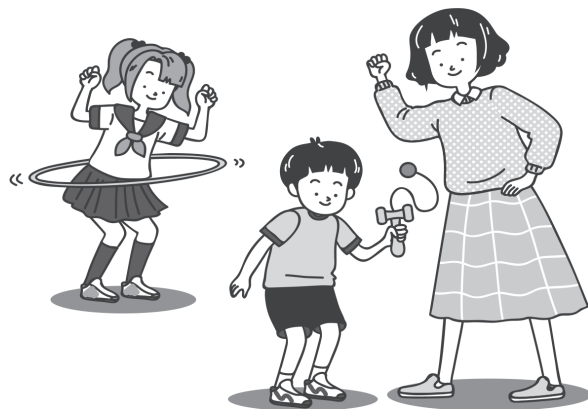
방학 기간 내내 아이와 손꼽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에 오기만을 기다렸었다. 혹시 서강대역 주차장에 도착못해 참여하지 못할까 봐 거의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다. 아이와 서둘러 여행 버스에 정시에 도착해 한시름을 놓았다. 오랜만에 만나 뵙는 애란원 선생님들이 반갑기만 하였고, 두 유와 샌드위치는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출발 전에 올리는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라는 기도는 항상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것 같다(원장님의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는 너무 좋음). 두 번의 휴게소에 들러서 아이와 간식거리를 사는 재미는 정말 핫한 것 같다. 드디어 기사님의 편안한 운전으로 4시간여를 달려 수련원에 도착했다. 맛난 식사와 함께 동해 약천 온천 수영장 체험을 했다. 아이가 방학 내내 워터파크 노래했는데, 아이에게는 딱인 것 같다. 큰 공룡을 잡고 올라타서 연신 빨리 밀어달라고 하는데 맘처럼 잘 밀어지지 않았지만,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즐거워했다. 다시 수련원으로 와서 맛난 저녁식사 후 법률교육을 들었다. 전부 평소에 알듯 말듯 한 이야기였지만, 웬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것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인식되었다. 양육비소송, 이행명령, 감치신청, 출금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가정법률상담소 조은경 상담선생님이 아주 콕콕 집어 알타강사로 열연을 해주셨다. 또한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법률지식이 많이 풍부해진

것 같다. 둘째 날, 맛난 아침식사를 한 후, 강릉 내 주거복지 센터에서 마이홈 포털과 네이버 블로그, 내집찾기, 국민주거생활가이드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다. 오후 점심식사 후, 아르떼 뮤지엄에서 40분을 줄서서 sun샷 사진은 아이와 함께 공연을 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인생사진 일 것 같았다. 아이는 동물들에게 색칠을 해서 스크린에 올리면 동물들이 움직이는 것이 인상적인지 여러 장을 그렸다. 신기한 광경이었다. 아쿠아리움 탐방도 닥터피쉬 물고기들과 교감하고, 사진을 찍으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 인형 선물도 제일 맘에 드는 것을 골라 신나 했다. 저녁에 가족 레크리에이션도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자고 나면 다시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아쉽기만 하다. 벌써 내년을 예약하고픈 마음이 굴뚝같은, 우리 가족 행복캠프 핫팅!

조○○

1년 전에 캠프에 처음 참여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지난 법률 캠프 상담으로 일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캠프 때 두 손 맞잡고 같이 울며 상담하던 때가 정말 엇그제 같은데, 그래서 이제 법률상담할 일이 없겠구나 싶었는데 인생은 바다에 돛단배를 띄운 것 같다더니 정말 모를 일 투성이네요. 이번 법률교육으로 단순한 법적인 문제가 아닌.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사례들로 쌓인 교훈으로 인간적인 법률상담을 해주시니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들게만 여겨졌던 ‘법’이 진짜 나를 생각해주고 내게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사형사 소송은 한 번 겪어보며 송사는 이제 질색이다 싶을 만큼 법이 참 알궂게 느껴졌고 내 경험으로 생긴 편견인 만큼 확실한 생각이 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라고 말문을 여시는 상담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왜 이렇게 마음이 벅차고 눈물이 나는지 이제 서로 그 마음을 알게 되니 정말 상담소와 참여자 모두가 가족이 되어가는 프로그램이구나 싶네요. 마지막 아침은 잠든 아이들을 교대로 보며 여유로운 오션뷰 조식을 혼자 즐기니 너무 좋습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너무 좋지? 나도 너무 좋아!” 소리에 제가 다 뿌듯하네요. 일 년 전에 취직하면 삼성생명보험

들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드디어 좋은 조연과 지지로 취업하여 삼성생명보험 가입해야겠네요. 삶의 고민은 상황 따라 법에 따라 바뀌는데 이제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 같고 아이가 아닌 엄마를 보니 저도 그때와 그 맘을 아니 서로 돕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가끔 막막했던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내 뒤에 있다는 생각으로 어깨 펴고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든든합니다. 상담소도 후원자도, 상담사님들도 이제 변치 않는구나 싶은 믿음을 주는 장기 프로젝트인 것 같네요. ‘법은 피로 쓰여졌다’라고들 하죠. 그만한 희생을 치르고 얻은 보호막이기도 할 텐데 이번에 느낀 건 <가족관계등록법>은 눈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눈물 나는 사연들과 한 자 한 자 쓰여 “너는 울지 말라”는 마음으로 법률사례들을 상담해주시다 보니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시겠다 싶네요. 법률교육을 작년에 들었지만 인생이 변하고 아이가 커감에 따라 새롭게 알아야 하고 필요한 게 많아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도 모르고 고민했는데 추후 <인지>일지 <친양자 입양>일지를 고민하는 거였더라고요. 아이가 5세가 되니 궁금한 게 많아지고 때도 심해지고 있는데, 수영장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도 하고 선생님들이 만들기 놀이를 하며 놀아주시니 2박 3일 친정에서 아이 맡기고 잘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본 적 없는 친정이 있다면 꼭 이런 기분이겠다 싶어서요. 객실 쪽이 아닌 구석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고 10분을 구르며 떼를 썼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웃이 깨끗했습니다. 와 정말 여성수



련원은 깨끗하군요. 원장님께서 작년엔 여사님들께서 손으로 직접 구석구석 청소하신다. 일손 필요하면 원장님도 직접 고무장갑 끼고 청소하신다 하셨는데 겪어보니 정말 깨끗하네요. 깨끗한 여성수련원에서 맘 편히 잘 놀다 갑니다. 식사도 메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엄마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신나게 뛰어 노니 늦게 자려는 아이도 금세 꿀아 떨어지네요. 덕분에 아이들 일찍 재우고 야식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수다 시간도 갖게 되게 작년엔 못 걸던 아이가 걷는 게 신기하다, 이 엄마는 이걸 잘하고 저 엄마는 잘 놀아주는 법이 있구나 서로 배워가며 알아가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이 갔었네요. 캄캄한 곳 무서워하던 아이의 공포증이 아르페 미술관으로 없어져 너무 좋습니다. 인생 시간도 얻었고요. 수족관도 너무 볼거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놀러 가기 힘든 한부모가족을 위해 여러 번 내 아이와 놀고 간 것처럼 알찬 프로그램을 짰다 채우려 노력하신 게 느껴지네요. 좋은 분들과 좋은 추억 만들며 갑니다.

이○○

2023년 여름에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에 참여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매년 정성스럽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인상적인 환영사로 맞이 해주시는 한국여성수련원이라 올해도 아이와 함께 꼭 오고 싶었는데 참석이 허락되었던 덕분에 무더위를 피해 환경 좋고 시원한 곳에서 가정법률교육을 통해서는 “감치”에 대해서 정확하고 필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2일차에 주거교육을 통해서 아이들과 안정된 환경에서의 삶을 꿈꿔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해 약천 온천 수영장과 아르페 뮤지엄, 아쿠아리움도 아이가 좋아해서 저도 좋았습니다. 여러 관광지를 함께 빠르고 안전하게 돌아 볼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넘넵 편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애란원 우리 가족 행복 캠프.

정말이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마지막 밤이 되었네요. 언제나 캠프 마지막 밤은 너무나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이 출산하고 0세반 탁아 맡기고 부모교육 들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아이가 고1, 17세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학교 학원 다니느라 정신없어서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예민해서 대화 나누기가 쉽지 않았는데 캠프 확정되고 사진은 어디서 찍을지 등등 너무 대화도 많이 하고 캠프 와서 사진도 가득 찍고 밥도 먹고 간식까지. 파도 때문에 바다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대신해 온천 야외풀 가서 노래도 듣고 사진도 찍고 너무 즐거웠고 아르페 뮤지엄에 가서는 아이가 핫플이라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중간 기말 끝나면 친구들이 여행도 가고 방학 되면 여름휴가 떠하는데 저희는 비용적인 부분이나 대중교통 이용하여 짐 가방 들고 다니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좋은 지원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요즘 SNS가 필수고 아이들끼리 안다고 하면서 많이들 좋다고 하고 또 여행 온 사진 스토리나 피드 올렸을 때 어디냐고 DM 오고 물어봐서 아이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춘기 친구들 또 진로 고민하고 아이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리프레시 하고 오랜만에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행복한 추억 쌓고 가는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 못 할 아기일 때는 경제적 부분이나 어떻게 키워야 할까, 아이가 자라면 달라질까 싶었는데 크면 또 또래 관계, 진로, 학원비, 경제적 부분 외에도 아이가 자라나도 어려운 부분이 많고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인들처럼 더욱 조심해야 하고 예민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캠프 여행도 큰 담으로 작용하는데 2박 3일 캠프와 또 강릉 핫플레이스 아쿠아리움 + 아르페 뮤지엄, 신나는 물놀이, 바다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너무 감사드려요. 최고의 캠프였습니다.

임○○

아이가 방학 때는 돌봄센터에 다닙니다. 친구들이 휴가 가서 놀 친구가 없다고 언제 가냐고 물으면 전 당당히 8월 17일에 강릉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보자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기대할 수 있도록 다이소가서 물총 놀이 풍선과 비치볼들도 구입했습니다. 강릉에 도착해 멋진 술발을 가로질러 짐을 풀고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무서워했는데 나중엔 신이 나서 워터슬라이딩도 형들 처럼 멋진 포즈로 하고 파란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신났습니다. 아르떼 뮤지엄은 색다른 전시회였습니다. 바다에 온 것처럼 파도가 치고 바닷소리가 나자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사슴이 아이에게도 다가와 어루만져 주니 사슴의 몸에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아이는 신기한 방들을 왔다 갔다 하며 탄성을 지르며 신났습니다. 저에게도 크나큰 휴식입니다. 음식을 많이 가리고 잘 먹지 않아 늘 식단에 고민이 많은데 영양 가득 맛있는 채소와 고기 건강한 식단은 휴가 기간 동안 아이의 반찬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 이보다 더 큰 휴식은 없는 듯 합니다.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고 휴식의 기회를 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분들과 애란원 선생님들 후원해 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김○○

주위에서 옥계캠프가 즐겁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참석이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고 기대 이상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 막연하게 ‘수련원이 좋아 봤자 얼마나 좋겠어!’ 라는 생각이었는데, ‘헬~! 여기 호텔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설도 만족스럽고 직원분도 친절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날. 아쉽게도 높은 파도로 바다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이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수영장을 가게 되어 한편으로는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꼭 필요한 법률에 대한 교육과 강사님의 세세한 설명으로 궁금했던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스타 핫

플, 아르떼 뮤지엄도 아이가 좋아하는 물고기를 실컷 볼 수 있는 아쿠아리움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옥계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도 정말 좋아합니다.



천○○

넌 행복해요. 우리 가족 행복캠프를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보물 1호인 엄마와 제 보물 2호인 제 동생♥이랑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이 캠프를 준비할 때 돈이 많이 들 텐데 이렇게 캠프를 캠프같이 준비해주시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가족이랑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봤는데 신청이 돼서 너무나도 신났습니다. 벌써 캠프가 끝나갑니다. 정말 넌 아쉽네요(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수영장 : 매우 만족, 영화 : 매우 만족♥, 밥 : 매우 맛있음, 지갑 만들기 : 매우 만족, 아쿠아리움 ~ 아르떼뮤지엄 : 매우 만족) 벌써 이것까지 다 했네요. 찐으로 너무 사랑해요.

편한 시설, 편한 활동 말도 못할 정도로 감동 먹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너무 재밌었고 숨 넘어가듯 ♥ 엄마와 동생하고 웃으며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추억이죠. 그리고 프로그램할 때마다 간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가족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가족 급훈)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길

정리 조은경 상담위원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9)

알코올중독자 가정의 유형

1) 순교자 유형

알코올 중독자의 음주가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믿으며 일반적으로 잘못된 자신감을 갖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불편함과 실망, 심지어는 자신의 아픔까지도 참아가면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효과적인 방법보다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아내는 “남편을 무조건 살려만 주세요. 병원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따르겠어요. 30년간 굶고 있고, 절에도 가고, 교회도 다니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지금도 내 남편은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고 술만 문제예요.”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형의 아내는 남편의 병이 진행하여 사망할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나의 희생과 노력

에 따라 남편이 회복되어 나를 위해 살아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족들은 “나마저 떠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언젠가는 나아지든지 아니면 애들이라도 잘 되겠지요”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해 온 역할들을 통하여 자신을 합리화하고, 스스로의 상실감을 보상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박해자 유형

순교자적 유형의 반대유형으로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통제력을 잃고 있을 때에도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탓하는데 주력합니다. 박해자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남성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은 아내가 실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아내는 남편에 대해 언어적·신체적 학대를 자행합니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법의 제정 이후에는 가정폭력상담소로써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정폭력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시리즈의 하나로 2006년부터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음주관련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상담소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음주문제상담을 일반인들에게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다. “이 ○○는 교통사고도 안 나. 이런 ○○을 안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 신도 없는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또는 “저 ○○, 저거 죽으면 좋아요. 죽여주세요.” 혹은 “병원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박해자적 유형의 아내는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공모자 유형

어떤 공동의존자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단주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공동의존자들은 음주가 계속되고 있는 알코올 가족 내에서 형성된 자기 정체성에 강하게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주를 통한 가족 구조의 변화에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변화보다는 중독자에게 공모자나 협조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자기의 질병을 부정하거나 감추려는 알코올 중독자의 노력을 은연중에 돕게 되는데 가장 깊이 돕는 행동은 공모자가 알코올 중독의 존재조차도 부정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공모자들은 알코올 중독이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의 공모자들은 가족 구성원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며 그 구성원에 대한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그들은 태도를 바꾸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허용하거나 자발적으로 술을 사다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태도를 지적받게 되면 이들은 그 행동이 문제에 기여했다는 것을 부정하며 자신이 전혀 다르게 행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사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술을 사주지 않거나 마시지 못하게 한다고 그 사람이 술을 먹지 않을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4) 술친구 유형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는 중독자가 될 위험성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실제로 중독자의 아내들 가운데는 중독자가 많거나 중독자의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

형의 아내나 가족은 환자를 면회하기 위하여 병원에 올 때 몰래 술을 숨겨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발각되어 술을 가지고 온 이유를 물어보면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풀려고 그런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병원의 가족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내가 입에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나, 술 안 마셨어요. 전혀 안 마셨어요.” 하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아내는 알코올 중독자가 퇴원하자마자 “여보, 술을 어떻게 끊어요. 한 잔씩 해야지. 남자가 조절해서 마시면 되지 완전히 끊으면 재미없어요.”라고 말하면서 남편에게 술을 먹입니다. 이런 아내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으므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5) 아주 냉담한 유형

이 유형은 중독자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려는 아내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돕는 것 자체를 포기해 버리고 용기를 완전히 잃어 감정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냉담함이 어떤 평화나 고요함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인생에서 희망이나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하는데, 특히 가정에 자녀들이 있을 때는 더욱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를 포기할 때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생활하는 어떤 가족 구성원도 건강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족은 중독자를 입원시켜 놓고 확신하듯이 “저 사람 절대로 술 끊지 못해요. 나는 알아요.”라고 말하므로 치료에 굉장히 방해가 되며, 또한 자살이나 이혼을 하거나 환자를 입원시켜 놓고 불륜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 가정폭력예방지침서 ② 음주문제예방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중에서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 운영 및 가정과 미래사회 준비사업 (2)

2005년 6월 ~ 서울시 지원 '위기가정 SOS' 사업 실시

'위기가정 SOS'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 담당자 및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분야

1.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 상담원 교육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에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및 긴급 보호 서비스 연계망, 다양한 상담이론과 위기가정에 대한 이해 등의 커리큘럼을 통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상담원 교육을 지원하였다.

2.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 상담원 심화 교육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 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재교육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전문상담 및 법률지원 분야

1. 파견 법률상담 서비스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에 법률전문가를 파견하여 각종 법률 관련 민원에 관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 1) 각 구청의 법률 관련 행정업무 지원 및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 2) 상담소의 법률상담 전문인력의 축적된 지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법률 서비스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대처하면서 수준 높은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까지도 도봉구청 등에서 상담소의 상담위원들이 매 월 파견상담을 실시하였다.

2.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 사이버 상담

현대사회의 특성상 익명성을 요구하는 인터넷 상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사정상 상담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이들의 상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률 및 가정문제 상담을 온라인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더 신속하게 내담자의 욕구에 근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 소송서류 대서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대서해 줌으로써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가정문제를 더 원활하고 적절한 절차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편집부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서로의 언어를 익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

2020버3***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3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집단상담 3회(비대면 진행)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2회
등 14회

상담기간

2020. 11. 18. ~ 2021. 10. 6.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지 13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남(13세)이 있다. 피해자는 중국 국적(한족)의 결혼이주 여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

행위자는 2020. 9. 사건 당일, 피해자가 여동생과 영상
통화하는 것을 보고 ‘너 혼자 사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며
말다툼 중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다음
날에는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고, 트렁크를
던지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내가 뭐를 잘못했
냐’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
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한국어는 하지만 섬세한 감정 표현
등은 미숙하여 소통이 잘되지 않으며, 다혈질이고 자존심
을 상했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고, 폭언 폭력하며, 본건에서
도 행위자와 같이 폭력을 하였다고 하였다.

초상담시 행위자는 피해자와 냉담하고 별 대화 없이 지
내지만 결혼을 유지할 의사가 확고하였고 피해자와 잘살게
되기를 바랐다. 부부는 문화적, 성격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특히 행위자는 피해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등
폭력적인 대화를 하여 갈등이 더욱 커진 것으로 판단되었
다. 이에 비폭력대화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고 실
천을 당부하였다.

피해자 역시 이혼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고, 행위자가 피
해자와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간섭이나 무시하는 언행을 하
지 않기를 바랐다. 피해자에게 상담을 권유하고 특히 코로
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자조모임에 참여
하도록 하였으나 아이가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중간점검시 피해자는 행위자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고집
이 세서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으며, 앞으로도 변화를 기대
하기 어렵지만 아이 때문에 산다고 하면서 사건 당시 부부
관계만족도는 마이너스 점수, 현재는 0점이라고 평가하였
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변은 안전하였고 혹시 폭력이 발생
하더라도 본인이 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중간점검시 행위
자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6점, 현
재는 7~8점이라고 평가하고 그동안 폭력대화를 하지 않았

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변화로 이전보다 감정을 조절하게 된 점을 꼽았다.

종결상담시 행위자는 피해자와 언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상담기간 중 먼저 화내지 않았고, 피해자가 화를 내도 받아치지 않은 점을 노력한 점으로 꼽았는데 상담 종결 이후에도 계속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0버2***폭행 / 2020버2***재물손괴,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6회,
집단상담 3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1회
부부상담 6회
등 19회

상담기간

2021. 2. 3. ~2021. 11. 1.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지 2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2020. 7. 사건 당일 남편의 늦은 귀가로 말다툼 중에 남편이 양손으로 아내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고, 아내는 이에 대항하여 남편의 목을 손톱으로 핏줄고 바닥에 있는 둥근 벽시계를 들어 남편을 향해 던지고 말다툼 중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남편의 핸드폰 번역기를 이용하여 중국어 통역을 시도하였으나 기기 오류로 통역이 되지 않자 격분하여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핸드폰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에 부부는 쌍방 폭행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본건 관련 담당재판부는 아내가 중국에서 결혼이주한 여성으로 한국어를 모른다고 하면서 중국어 통역지원 여부 및 상담 가능 여부를 사전 타진하였다. 그런데 남편만 초기 상담에 왔고, 아내는 식당일을 하며 화요일만 휴무라고 하여 화요일로 상담 진행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지만 목과 허리 등이 아파 입원하였다고 하여 퇴원후 연락하도록 하고 기다렸지만 이후 연락이 없었다. 상담자가 남편에게 연락하여 확인한 결과, 아내는 퇴원하였지만 건강상태는 그리 좋지 않다고 하고, 아내의 한국어 실력은 여전히 미흡하며, 남편도 중국어를 알지 못하여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은 채 답답하게 지내고 있었다.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상담을 많이 진행하지 못하였기에 부부의 상담기간을 연장받았다. 그리고 중국어 통역 지원(강동구청 결혼이민여성 외국어 강사)을 받아 부부상담을 진행하였다.

부부는 상담을 통하여 부부간에 신뢰가 형성되었다.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였는데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가 돈 때문에 자기와 사는 것인가 의심했었는데 아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다. 상담시 아내에게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당부하고 남편에게 집착하거나 의심하지 말도록 당부하였는데 아내는 이를 받아들였다.

부부에게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남편은 이를 인식하고 하루에 한국어 한 문장씩을 아내에게 알려주었고, 아내는 다문화가정센터의 한국어 공부가 2단계로 올라가는 등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

종결상담에서 남편은 사건당시 부부관계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점, 현재는 8~9점이라고 평가하고, 만족도 상승 요인으로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점을 꼽았으며, 남은 과제로 언어소통의 한계 극복을 꼽았다. 아내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만족도는 10점 만점에 3점, 현재는 7점으로 평가하였는데 좋아진 점으로 남편이 아내의 귀함을 인정하는 점을 꼽았다. 남은 과제로는 남편이 아내보다 시가 식구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점이 개선되기를 바랐다. 부부 모두 상대방이 바라는 점을 공감, 수용하기로 약속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0버3***특수협박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7회, 음주문제상담 3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집단상담 5회(비대면 진행),
피해자(아들) 전화상담 1회
등 16회

상담기간

2021. 5. 13. ~ 2021. 11. 4.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장남
으로 29세이며, 배달 라이더를 한다. 행위자는 2020. 10.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죽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위해를 가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
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기 관리가 안되고, 불성실
하며, 부모에게도 무관심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편하지 않았다. 또, 행위자의 부모는 이혼하고 각 혼자 지내
는데 특히 여든이 넘는 부친이 치매가 있음에도 혼자 지내
는 상황에서 장남인 자신이 사정상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
움, 경제적 어려움. 형제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은 점 등 여
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사건 이후 행위자는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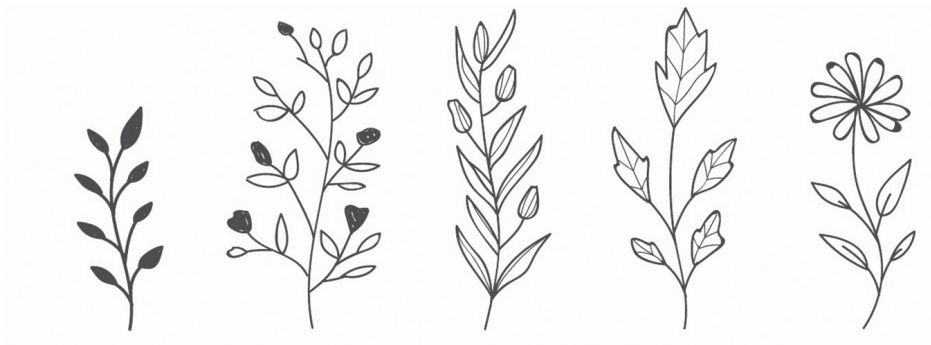
자가 대꾸를 하지 않아 포기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고
그 외는 시도하지 않았는데, 2021년 5월 중순 경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잘못했다”고 하였다. 행위자
는 이로써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고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요청에도 힘닿는 대로 응하며 화해하고 잘 지내게 되었으
며, 이후 피해자와 충돌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
였다.

상담에서는 부자관계 뿐 아니라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점
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위자는 이전에는 배우자에게 일
방적으로 자기주장을 많이 했으나 상담을 통하여 인식이
개선되었고, 아내와 소통 및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실천 노
력을 계속하였다. 행위자는 처음에는 상담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이었지만, 상담 및 동영상 시청 등 교육을 통
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종결상담에서 행위자는 행복한 상태와 행복하지 않은 상
태가 반복 교차한다고 하면서 늘 행복하기만한 삶이 있겠
느냐고 반문하였다. 그리고 상담 덕분에 자제도 하고, 어떤
때는 아내에게 욕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반성하고 감
정조절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피해자인 아들과도
여전하게 문제는 있고 명확한 답도 없지만 최대한 충돌을
피할 것을 다짐하였다. 처음에는 상담소에 오는 것이 불편
했지만 점차 마음이 편해졌고 상담 와서 속내도 털어놓고
모르던 것도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피해자도 행위자와 화해하였고, 잘 지내고 있으며, 폭력
재발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 혼 20

● 배우자의 잘못을 이유로 배우자의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는 못한다

Q 문 77 | 딸이 평소 사위와 다투어 친정에 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딸을 꾸짖어 집에 돌려보내면서 사위와 잘 지내도록 타일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사위가 저의 집에 찾아와 제 딸의 가출을 이유로 이혼하겠다고 위자료를 장인인 제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사위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나요?

A 배우자의 잘못을 이유로 배우자의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딸의 가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딸 부부의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인인 귀하가 사위에게 위자료를 줄 책임은 없습니다.

● 장인 · 장모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Q 문 78 | 제가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여 처가에서는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장인, 장모

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욕설을 하며 아이까지 낳고 사는데도 언제든지 헤어지라고 합니다. 아내를 친절로 불러 보름씩 보내 주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자 장모와 처남들이 와서 밤새 감금을 하고 강제로 이혼신고서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이혼하려는데 장인과 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전적으로 장인, 장모에게 있다면 그로 인해 귀하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장인, 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제751조)..

● 시부모의 학대로 이혼할 경우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Q 문 79 | 남편은 매사를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어머니는 친인척들에게 저에 관한 험담을 퍼뜨리고 저를 미워하는데, 며칠 전 괜한 일을 트집 잡아 구타하기에 분해서 울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합세해 저를 내쫓았습니다.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에게는 재산이 없고 재산은 모두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시어머니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저는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는 남편과 재혼하여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에 제 곁을 지켜주었던 남편과 재혼을 결심했을 때도 남편의 음주문제는 심각했지만, 제가 잘해주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술만 마시면 심한 폭언에, 행패까지 부리고 있기에 이제는 버티기가 힘든 지경입니다. 필름이 끊긴 상태로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알코올성 뇌전증, 알코올성 치매가 진행될 만큼 뇌가 이미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금단현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에 입원 치료까지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이번에는 만취해서 귀가한 남편과 딸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에 상호간 폭행이 있었고 저와 남편 모두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갈 때까지 만이라도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데, 가족 내 구성원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는 남편의 주취 폭언과 폭행으로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도 딸이 대학에 갈 때까지만이라도 이혼을 늦춰보고자 많은 방법을 고민하고 노력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남편은 알코올로 인해 이미 뇌가 상당 부분 손상된 것으로 보이기에 대화 시도나 행동변화요구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폭력사건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의 절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됨에 따라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위탁 보호처분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위탁기간 동안 상담을 받으며 두 분이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폭력성행을 교정하며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상담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독 문제 치료에 참여하여 궁극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것에 상담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온 전문 상담위원들을 중심으로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 전문가, 사회복지학 교수, 심리상담가 등에 의해 개별상담 및 부부(가족)상담, 집단상담, 음주문제 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등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음주문제의 경우 음주문제가 폭력 및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는 행위자(주로 남편) 또는 피해자가 함께 상담을 받으며 지역사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알코올 중독 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알코올 중독은 아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보내준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연민의 마음에서 벗어나 남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권력의 개입으로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과 음주문제를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남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소도 법원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차연실 상담위원



재미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천명관의 소설 『고래』를 뒤늦게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 작가가 『고래』보다 나중에 쓴 『고령화 가족』도 좋았는데, 그만큼 아니 그 이상 재미있었다. 이쯤에서 다시 고 김현 평론가를 다시 소환해 본다. “문학은 동시에 불가능성에 대한 싸움이다. 삶 자체의 조건에 쫓기는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유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꿈꿀 수 있다. 인간만이 몽상 속에 잠겨 들 수가 있다. 몽상은 억압하지 않는다. 그것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몽상은 인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억압된 삶인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문학은 그런 몽상의 산이다. 문학은 인간의 실현될 수 없는 꿈과 현실과의 거리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드러낸다.” 『고래』를 읽으며 다시 찾아본 문장이다. 그리고 어떤 영화감독은 이 책을 두고 “마치 팀 버튼이 『토지』를 쓴 것 같다. 신화적이고 설화적이며 예술성까지 갖춘 책!”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러하다. 『고래』는 악몽 같은 판타지로 써 내려간 거대한 서사시이니 말이다.

‘평대’라는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배경으로 이 책은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서”라는 노파에게서 시작된다. 불우했던 노파와 노파가 애꾸로 만든 그녀의 딸 그리고 자신과 관련한 남성들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자기가 낳은 딸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노파의 삶을 흡사하게 반복하는 금복 그리고 금복의 딸, 춘희가 있다. 책의 말미에 이르러 “몇 년이 흘렀

다. 그녀는 홀로 벽돌을 굽고 있었다.”는 어마어마한 결말을 보여주는 춘희. 돌고 도는 노파와 금복과 춘희의 삶, 하지만 춘희의 삶은 “어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라는 릴케의 시를 떠올리게 한다.

어느 인물 하나 독특하지 않은 이가 없고 이야기는 신화와 민담과 괴담과 무협을 넘나드는 이 특별한 이야기, 500쪽이 넘는데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고 궁금해서 계속 책장을 넘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책의 대단한 지은이, 작가 천명관은 골프숍의 점원, 보험회사 영업사원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서른이 넘어 영화판에 뛰어 들었다. 영화 『미스터 맘마』의 극장 입회인으로 시작해 영화사 직원을 거쳐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으며, 연출에 뜻을 두고 시나리오를 들고 오랫동안 총무로의 낭인으로 떠돌았으나 사십이 될 때까지 한 편도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준비하던 영화가 엮어진 마흔 즈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동생의 권유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소설 문학계로서는 다행한 일이 아닌가 싶었다.

“한 번도 이렇게 전개되는 플롯을 읽어본 적이 없을 것”이라는 극찬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선정되며 최근 다시 관심을 모았던 『고래』는 정말 즐거운 독서였다.

이숙현 편집부장

고래

천명관 장편소설

문학동네, 2023 (1판 13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연수를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여름 방학 동안 본소에서 현장체험 연수를 마친 대학생들의 소감을 싣는다.

김 현 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실습을 시작할 땐, 가족법에 무지한 제가 상담소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전화업무를 맡아 수행하거나, 교육부 영상을 제공할 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까봐 늘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미숙한 실습생들을 늘 존중해주시고 친절하게 교육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금세 적응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책을 읽고, 전화 업무를 수행하기 훨씬 수월해졌음은 물론, 가족법의 대략과 구체적인 사례 또한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화 업무와 교육부, 도서부 업무 외에도 다양한 법률구조의 실무적인 부분도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실습 기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상담을 참관하며, 고도의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필요로 하는 상담소 업무를 오랜 기간 맡아 오신 선생님들이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실습을 마치고도 계속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봉사를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현장실습 활동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윤 하

동국대학교 법학과

방학기간 중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싶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실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부생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실습 첫 날 오리엔테이션 때는 한 달 동안의 실습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직접 현장실습을 통해 법률구조 업무를

하나하나 수행하면서, 그리고 상담소 선생님들께서 업무를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매일 매일 상담소에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습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실습을 하면서, 그저 학문적인 배움으로는 법적 지식을 쌓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학문으로는 익힐 수 없는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해봄으로써 리절마인드를 더욱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최 다 빈

동국대학교 법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첫 출근한 날에는 제가 이 법률구조 업무라는 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정확한 업무 지시와 설명을 통해 차근차근 일을 배울 수 있었고, 실습생들과 서로 모르는 점, 배운 점을 공유하며 업무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김 경 희

동국대학교 법학과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운명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운명은 법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법학 연구원, 그중 법률 실무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률 실무 전문가는 판례와 사례 분석을 통한 실무 능력을 갖춘 법률가이며 현장에서 법률

문제를 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현장실습은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실무 능력을 배울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한 달이란 짧은 기간에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선생님들은 많은 실무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전화, 도서실, 교육부, 법률구조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일정을 꾸려 실습생들이 다양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상담 문의 및 안내, 가사소송 관련 전문지식, 교육 안내,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다루는 소송구조 업무 등 실무를 수행하여 실무에 대한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실무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내담자 진술서 작성, 이혼소송과 재판상 파양 청구에 필요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실무였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아니었다면 경험할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직접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며 소송구조의 첫 단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내담자분의 실제 상황과 법적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방법, 진술서 작성 시 필요한 법률적 논점에 따른 작성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무료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상담위원과 내담자의 상담을 참관하며 그동안 배운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경험을 통해 법률 실무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현장실습 연수 경험은 “세상을 넘어 현실을 넘어 꿈을 향해, 오늘을 바꾼 나의 미래는 분명 달라져 있을 거야.” 좋아하는 뮤지컬의 가사처럼 법이라는 전공의 근본을 공부하고 싶다는 열정을 가져왔고, 전공을 살려 최초 대륙법계의 독일로 교환학생을 다녀와 남은 학기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다루는 가사소송 전반의 가족법을 공부하고 다시 봉사활동자로 참여하는 등 법률 실무 전문가 법률 인재로 성장하도록 새로운 기회를 준 연수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도우며 실습했던 실습생들, 가르쳐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김 지 원

동국대학교 법학과

방학 동안 현장실습으로 2023년 8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장실습을 다녀 온 선배들의 추천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좋은 기회로 선발되어 실습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상담소 오리엔테이션에서 상담소 소개 영상 및 이혼 전 교육 등의 상담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한 시청각 자료를 시청했습니다. 상담소로 연락하는 내담자에게 상담소 안내를 하고, 법률상담 과정을 참관하면서 실무적인 지식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술적인 내용으로만 배우던 법률구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진술서 초안, 소장, 파산 및 면책신청서 등 법률구조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송무와 관련한 업무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내에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장상담실에서 법원 현장에서 진행되는 상담을 참관하고, 소송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새로운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상담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들의 상담과 교육 수강을 도왔습니다. 또한 상담소 내 도서실에서 가족 및 가족법에 관한 도서와 소송구조 서류 내용을 살펴보고 가정법률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실습에 지원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하는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몰랐는데, 한 달 동안의 실습을 거치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소로 상담 문의를 하는 분 중에는 목소리부터 간절함이 묻어나는 분들도 있었고,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신 분들도 많다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전화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즉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에 아쉬움도 많이 들었고, 가족법과 소송법 등을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률구조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익힐 때에도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었는데 내담자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또는 서류를 살펴보면서 점점 익숙해짐을 느끼면서 뿌듯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히 ‘법조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고 졸업 후 진로의 결정에 법률을 다루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습을 할수록 상담소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업무가 대단하고 멋있어 보였고, ‘앞으로 법률을 다루면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정확히 맞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일하는 동안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즐

거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한 자원봉사자로 계속 해서 상담소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조 경 지

동국대학교 법학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 가던 중 여름방학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전공인 법학을 현장에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현장실습을 지원하게 되었다. 8월 한 달간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내담자들과 직접 통화하고 상담위원, 변호사들이 일하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끼며 배웠다. 이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이혼, 가정폭력 등 상담을 하고 싶은 분들 혹은 법원으로부터 상담명령을 받은 분들이 방문한다. 하루에 수십 건의 가사사건 관련 고민의 전화상담과 법적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로 법률상담을 보며 하루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일생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나를 느꼈다. 또한 법원에서 상담명령을 받은 내담자들의 교육과 상담을 보조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상담소의 역할과 노고가 대단하다고 느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법률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그로 인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며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이번 현장실습은 매우 값진 경험과 배움을 주었다.

김 수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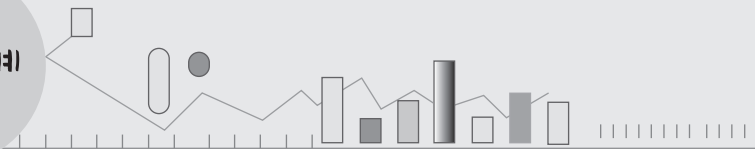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법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현장실습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소송구조를 도와주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또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법적 절차 등 법률 상담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돕는 일이 매우 값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상담소에 출근하여 처음 상담 전화를 받았을 때 모르는 사람의 깊은 사연을 듣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드라마나 전공 책에서만 보던 일들을 실제로 겪고 계시던 분이 실제로 겪고 계시는 분이 많았고 가정폭력부터 친생 부인, 여러 사유로 얽힌 이혼, 상속 문제 등의 사연이 이렇게나 많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

기까지 했다. 당장 폭행당해 목소리를 덜덜 떨며 전화하시는 분도 계셨고, 배우자가 아이를 돌보지 않고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러한 어려운 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졌다. 전화 업무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상담 명령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상담 경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며 가정폭력 행위 시에 진행되는 법적 절차와 보호처분을 받는 내용을 잘 알 수 있었고, 상담소에서는 이들에게 건강한 부부 대화법, 부부간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내담자의 채무증대 경위서의 진술서 작성을 실습하며 채무 발생 및 증대 경위 때문에 파산 신청으로 나아가게 되는 상황도 이해하게 되었다. 서울가정법원의 종합민원실 내에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출장상담을 참관하면서, 우리나라는 중혼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단 중혼이 신고된 경우에는 전혼과 함께 후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혼인의 효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호적상 친부모가 아는 다른 사람이 부모가 되어 있는 경우 훗날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데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상담소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법률구조 관련 소송 자료를 읽으며, 주장하는 사실 관계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 정말 수많은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연수받는 기간에는 이론을 가지고 달달 외우는 공부라 아니라, 법적 절차가 필요한 실제 사건을 듣고 법률을 적용하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연스럽게 깨우치는 공부를 했던 것 같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음을 느끼며 ‘법’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추상적으로 법을 배우면 어디든 도움 되는 일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에서, 연수를 통해 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몸소 배웠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서 그래도 나는 법으로 사람을 돕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정립하게 되었다.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정말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2023년 하반기 자원봉사자 법교육



본소의 2023년 하반기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봉사자 대상 교육이 8월 25일과 28일에 진행되었다. 교육은 상담소의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이해와 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 법교육으로 68명의 대학생 자원봉사 지원자들이 참여하였고 조은경 상담위원이 강의하였다.

본소의 자원봉사활동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각 대학생이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공익 및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각종 법률 및 사회교육사업, 조사연구, 출판 홍보 사업을 통해 법률과 교육, 법개정 운동을 통한

성평등 및 가정의 민주화에 앞장서는 본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의 소외계층 특히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법과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가족 문제 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있다.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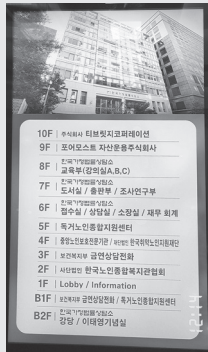
지난 8월24일 본소 교육프로그램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폭력적인 배우자에 대항하는 법'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사는 분노의 특징은 누가 나에게 공격하면 나도 똑같이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며 고통을 받은 사람은 다시 어떤 식으로든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므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하였다.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고, 특히 가정 내 폭력은 존재해서는 안 되므로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평범한 사람도 가정폭력의 주범이 될 수 있으며 절대로 쉬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 강의는 9월 21일에 '의심,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을 주제로 실시될 예정이다.

회관 입주사, 포어모스트에서 상담소 엘리베이터 내 영상 설치 등을 위한 비용 기부

상담소 회관 9층에 입주하고 있는 포어모스트자산운용주식회사(대표 김영철)는 상담소 엘리베이터 내 영상 안내 설치 및 현관과 각층 안내 현판의 새로운 제작을 위한 비용 950여만 원을 기부하였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

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라 본소에서도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 대학생 현장체험실습

7.3-8.29 이화여자대학교

김다은, 김윤서

8.1-8.29 동국대학교

김수빈, 김지원, 박진희, 조경지

2023년 8월 상담통계

총 건수 4,567

법률상담 (3,845)

면접	전화	인터넷	지상
978	2,789	76	2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93	36	93

• 인터넷 정보 이용 69,101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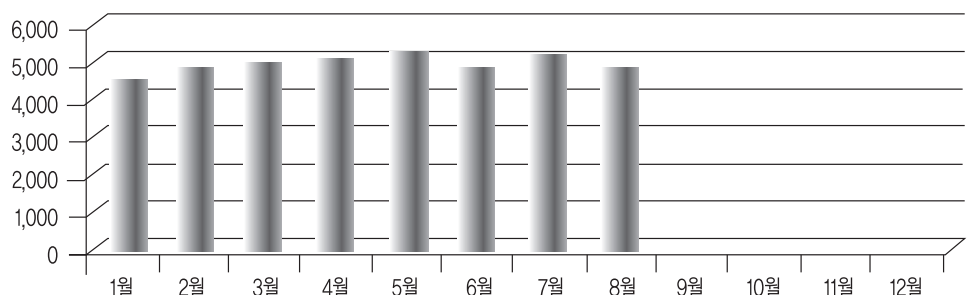
2023년 8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567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845건(84.2%), 화해조정 593건(13.0%), 소장 등 서류작성 36건(0.8%), 소송구조 93건(2.0%)이었다.

법률상담 3,845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3년 7월에 비해 친권·양육권(3.8%→4.7%), 양육비(6.9%→7.5%), 면접교섭권(1.9%→2.0%), 친생부인(0.8%→1.0%), 친생자존부(2.1%→2.4%), 입양

(0.6%→0.9%), 파혼(0.1%→0.2%), 이혼무효·취소(0.1%→0.3%), 유언·상속(6.5%→6.7%), 성변경(0.8%→1.0%), 파양(0.2%→0.3%), 미성년후견(0.5%→0.6%), 가사기타(15.9%→18.5%), 부동산(0.3%→0.4%), 채권·채무(0.3%→0.4%), 개인회생(0.2%→0.3%)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845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78건(25.4%), 전화상담 2,789건(72.5%), 인터넷상담 76건(2.0%), 지상상담 2건(0.1%)이었다.

2023년
월별
총건수



● 출장법교육 및 순회상담

8.14. 강서지역자활센터 생활법률교육

- 천다라 상담위원

8.23. 강서지역자활센터 생활법률교육

- 김민선 변호사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장상담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8월 4일 김현옥 재무회계과장, 김민선 변호사 등과 함께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 개최한 민간 법률구조사업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법무부에서는 이유선 인권구조과장과 반준성 서기관, 김용덕 사무관 등이 참석하였다.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영교의원실과 전국여성법무사회 공동주최로 열린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개선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7월 6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비전임교원)로 채용되어 2023년 2학기에 리갈 클리닉Ⅱ 강의를 맡게 되었다. 8월 17일과 24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8월 17일에는 본소 광배희 소장의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면담에 배석하였다. 8월 18일에는 강원대학교 부설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에서 “가족법의 변화 그리고 가정폭력”을 주제로 zoom 활용하여 비대면 강의를 하였고, 8월 31일에는 서울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 및 기타 내근 직원 대상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대응 실무과정 직장교육에서 “가정폭력관련 법령 및 경찰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김민선 변호사는 8월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주최한 공익소송 및 법률복지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광배희 소장, 국회 법사위원장 면담

광배희 소장은 지난 8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상담소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고맙습니다

2023년 8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주신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대학생 자원봉사

유일재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정민영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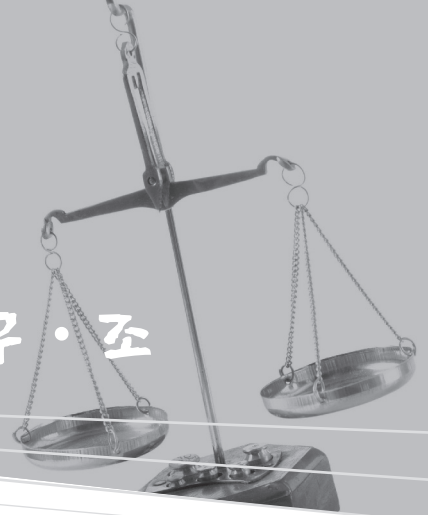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방임과 학대를 받던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위한 친권자 변경 등 청구

법률구조 2023-1-59

담당 : 이재원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30대)은 상대방(남, 40대)과 2017년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조정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청구인은 혼인생활로 인한 채무까지 지게 되어 부득이 상대방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방치한 채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겨버리고 면접교섭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어렵게 아이를 만날 때마다 아이의 몸결은 엉망이었고 상대방과 조부모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하는 정황이 나타났다. 2022. 11. 아이가 조부에게 맞아서 이가 흔들리고 피가 난다며 전화하였고, 청구인은 경찰서에 조부와 상대방을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 아이는 분리 조치 되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친권자 ·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 2023. 5. 25.)

1.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6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이하 생략)

자매의 자녀를 위탁양육하던 위탁모에 대한 미성년후견선임

법률구조 2023-1-155

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등

내용 : 청구인(여, 30대)은 상대방(여, 30대)의 동생으로 상대방이 극심한 알코올 의존 증세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가 장기화되자 상대방의 자녀인 사건본인(8세)을 양육하며 2021.3. 사건본인에 대한 가정위탁보호결정을 받았다.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퇴원을 한 후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으며, 사건본인을 3년째 양육중인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사건본인을 위한 입출금 통장 개설 등 은행 업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미성년후견선임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

결과 : 결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3. 5. 25.)

1.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24.8.10.을 시작으로 매년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매년 7.10.)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상속의 포기, 단순 승인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 이후 주소의 변동이 있거나 연락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남편의 폭력으로 장기별거에 이른
아내의 이혼청구**

법률구조 2023-1-194

담당 : 정경일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70대)는 1978년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사소한 부부싸움에도 밥상을 뒤엎고 주먹과 발길질로 원고를 구타하였고, 생활비도 잘 주지 않아 원고는 1995년 집을 나와 떠돌며 살다가 현재 노숙인 시설에 입소 중이다. 원고는 건강과 생활고 등으로 힘겹게 지내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3. 7. 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알코올중독과 폭력으로 아내를 괴롭힌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3-1-34, 35

담당 : 강종협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재산분할

내용 : 원고(여, 50대)는 피고(남, 60대)와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혼인 초부터 시부모를 모시며 열심히 살았는데 자주 피고의 주사와 폭행, 폭언에 시달렸다. 2020년 피고는 알코올 전문 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한 후 잠시 나아진 듯하였으나 다시 술에 의존하고 폭력성이 심해져서 손에 잡히는 것들을 원고를 향해 던지거나 구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23. 6. 1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제2항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하

되, 이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무분별한 과소비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아내와의 이혼**

법률구조 2022-1-423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남, 40대)는 피고(여, 40대)와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혼인 초부터 과시적인 소비성향으로 씹씹이가 크고 무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고는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카드론으로 상환하다가 수 차례 가족들에게 금전을 빌려 변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지인들에게 가전제품, 골드바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금을 미리 받아두고 물품을 제때 주지 않아 독촉을 받았고, 시중은행, 저축은행, 사채, 각종 카드사들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차용한 채무들이 있었다. 또한 의뢰인도 모르게 의뢰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채무들도 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전가한 채무로 인해 신용회복 중으로 더 이상의 혼인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혼을 위해 법률구조 신청을 하였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23. 6. 1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4. 피고는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이하생략)

장애 있는 아내를 주벽과 폭력으로 학대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3-1-135

담당 : 배준영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재산분할

내용 : 원고(여, 50대)는 피고(남, 50대)와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인지 및 언어 장애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주사와 폭행, 폭언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10여 년 전 집을 나와 살았다. 그러다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사는 것이 힘이 들어 다시

집에 돌아갔으나 피고는 여전히 주벽과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는 다시 집을 나와 친정 근처에서 살았다. 장애가 있고 경제능력이 없는 원고는 어렵게 수급자는 되었으나 혼인관계에 있어 지속적인 수급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되어 이혼을 위해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광주가정법원 2023. 6.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 있는 아내와의 이혼

법률구조 2023-1-60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70대)는 1976년에 평양에서 피고(여, 60대)와 혼인하였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수차 중국을 오가면서 장사를 하던 중 2004년 소식이 끊겼고, 원고는 피고의 친척으로부터 피고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복송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2005년 원고는 탈북하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탈북민들에게 피고에 대해 수차 수소문했으나 중국에서 복송되어 교화소에 수감 되었다는 소식만 들었다. 피고와 헤어진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이혼을 위해 원고는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광주가정법원 2023. 7. 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연락두절된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법률구조 2023-1-40

담당 : 장성민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청구인(여, 70대)은 사건본인(남, 12세)의 조모이다. 청구인의 자녀이자 사건본인의 친부인 상대방1(남, 40대)과 사건본인의 모인 상대방2(여, 50대)는 2014년 재판상 이혼하였고 상대방들이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상대방1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맡긴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청구인은 2015년 사건본인에 대한 가정위탁보호결정을 받아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양육중이다. 사건본인

은 2급 지적장애인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썼다. 사건본인은 내년에 중학교 입학 앞두고 있으나 친권자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친권자 부재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8. 8.)

1. 상대방들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사회복지사 이**를 선임한다.(이하 생략)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3-1-98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시부모를 모시고 세 딸과 함께 전세금 1,000만 원 정도의 반지하방에서 생활하였다. 신청인은 세 딸을 양육하기 급급하여 직장생활을 꿈꿀 수 없었으며, 오로지 배우자의 월급에 의존한 채 살아야 하였다. 월급이 약 160만 원에 불과하여 생활이 항상 어려웠으며, 배우자의 직장이 파산하면서 생활고가 가중되었다. 이때 배우자의 권유로 카드대출과 보험대출을 받게 되었고, 2012년경에는 시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병원비와 장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드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였다. 신청인은 신용불량자가 되기 싫어서 채무상환에 최선을 다했으며, 그 노력 중 하나로 배우자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였다. 신청인은 매월 약 27만 원, 배우자는 매월 약 47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납입금 만큼은 마련하기로 배우자와 약속하였다. 그러나 내담자는 파킨슨병을, 배우자는 슬관절염을 앓아 더 이상 근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개인워크아웃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처럼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채무해결에 고심하던 중 배우자와 함께 본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7. 20.)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3년 9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9월 11일, 9월 25일, 10월 23일, 11월 13일, 11월 27일, 12월 휴강)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3년 2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12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대면강의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9월 21일	의심,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
10월 26일	마음이란 무엇인가?
11월 23일	부부대화법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의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4년 8월 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등지고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 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5시
- ▶ 대 상 : 서울가정법원 등 보호처분 대상자
- ▶ 진 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도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 정	강 의 제 목	강사
9월 13일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기분장애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0월 11일	존재를 삼킨 타인의 시선, 불안장애	
11월 8일	모든 걸 끝장내겠다는 충동, 불안조절장애	
12월 13일	갈망에서 시작된 절망, 중독장애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에 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4년 1월 16일(화)~18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혼인 관련 법률/이혼관련 법률/부모·자녀 관련 법률/후견 관련 법률/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일시 ▶
2024년 8월 중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